

 경상북도	보도자료 【18. 3. 13(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생활경제교통과			
		작성자	단장	박재구		
			사무관	남구진	주무관	변진
		연락처	054-880-2665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 도전!

- 5개분야 25개 세부사업 중점 추진, 13일(화) 만관경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경상북도는 사람중심에 목표를 둔 도정방향을 바탕으로 차 보다는 사람이 우선하는 ‘사람중심, 차별없는 교통안전 실현’이라는 비전 실천을 위해 「2018년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 교통안전의식 및 교통문화 선진화 ▶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 ▶ 선진교통문화의식 및 교통질서 확립 ▶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강화 ▶ 기관별 교통안전체계 협업 강화 등 5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교통약자인 어르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용품을 제작 보급한다.

또한, 주민 참여형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사람우선의 선진교통 문화 정착·확산에 나선다.

도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부분 학기 중인 3~7월, 9~11월에 집중 발생(80.8%)되어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과 학부모 등 주민참여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빈발 지역에 지자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합동진단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12세 이하)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월별 발생현황 (경북 '12~'16 누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4	8	10	14	12	13	14	6	3	11	12	3
비율 (%)	3.7	7.3	9.1	12.7	10.9	11.8	12.7	5.5	2.7	10.0	10.9	2.7

[출처 : 도로교통공단]

경북도는 전국 2위의 도로연장(13,184km)과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구조로 변하고 있다.

※ '17년 자동차 등록대수 : 1,392천대, '16대비 2.8%증('16년 1,354천대)

교통안전 시행계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436명에서 398명으로 38명 감축(8.7%)하는 한편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이하로 감소시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에 도전한다.

한편, 경북도는 13일(화) 예천초등학교 앞에서 경북도, 예천군, 예천경찰서,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민·관·경 합동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150여명이 참석하여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운행, 불법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어린이들에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고 교통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행지도를 했다.

박재구 경상북도 생활경제교통과장은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사람중심, 차별없는 교통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노력은 물론 평소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사진자료